

야구

6

2019년 1월 3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SK 왕조 재건 원년으로”

손차훈 단장, 새해 시무식서 강조

‘2019년 우승 수성이 아닌 왕조 도전’ SK 와이번스 손차훈 단장의 사무실 한 쪽 벽에 걸린 하얀 게시판에는 짧고 굵은 문장이 하나 적혀있다. 새 시즌 팀이 함께 나아갈 방향이 녹아있다.

손 단장은 2일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시무식에서도 직원들과 다음의 메시지를 공유했다. 2018시즌 한국시리즈(KS) 우승 팀으로서 방어가 아닌 공격적인 모습을 지켰다는 각오다. 8년 만에 KS 우승을 이뤄 왕조 재건의 기틀을 마련했고, 2019년을 기점으로 본격 왕조 재구축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손 단장은 “올해가 더욱 중요하다. 우승으로 좋은 기회가 생겼고, 전력 누수도 없다. 왕조 구축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트시즌이 김태훈, 강승호 등 젊은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거다. 그 시간을 통해 모두들 많이 성장했다”고 돌아봤다.

대내외적으로 손 단장은 염경엽 선임 감독과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이로 통한다. 워낙 오랜 시간동안 긴밀히 손발을 맞춰와서다. 손 단장 스스로도 이미 염 감독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그는 “프리에이전트 계약을 비롯해 겨울 시장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빨리 전력을 구축해 염 감독님께서 새 시즌을 구상하는데 최대한 많은 시간을 드리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문학 | 서다연 기자 seody3062@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신년 기획 | 도약이나 추락이나, 갈림길에 선 2019년 한국 프로야구를 위한 제언 <중>

한국야구의 명예는 2018년 크게 추락했다. 각종 사건사고와 대표팀 발탁 논란까지... 1982년 원년 이래 이렇게까지 온 국민으로부터 매를 맞았던 적이 있었는지 싶을 정도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는 말조차 지금의 한국야구에는 자만의 말이다. 바닥을 뚫고 일어설 수 없는 곳까지 떨어지느냐, 아니면 기적적으로 다시 도약해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느냐. 이 모든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2019년의 첫 발걸음에 달렸다. 무엇보다 시급하게, 또 신중하게 해결해야 하는 한국야구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

“총재님, FA 등급제·사치세는 어떤가요”

KBO리그 평준화가 가장 큰 과제
FA 등급제와 사치세 고려해볼만
도약 위해 신중한 제도개혁 절실

빌리 빈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부사장을 스타 경영자로 만든 것은 ‘머니볼’ 철학이다. 베스트셀러 경영서인 ‘머니볼’의 부제는 ‘불공정한 게임을 승리로 이끄는 과학’이다. 메이저리그는 약육강식 무한경쟁 자본주의 시스템의 축소판이었다. 빅 마켓과 스몰 마켓 팀의 극심한 빈부격차라는 심각한 부작용에 몸살을 앓았다. 불공정한 게임 속에서 가난한 구단은 약탈을 당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더 공정한 볼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강력한 선수시장 통제로 변형하고 있는 미국프로풋볼(NFL)의 모범담안이 존재한다.

●국민 취미 압도한 NFL의 수익 공유제
NFL은 최근까지 경기가 매진되지 않으면 방송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블랙아웃 제도를 유지했다. 팬들에게 TV가 아닌 경기장에 와서 직접 경기를 보라는 대담한 배짱이다. 열광적인 인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연방통신위원회 개입하기 전까지 이 제도는 수 십 년간



추락과 도약의 갈림길에 선 한국프로야구가 꾸준히 발전하기 위해 현실에 정확히 부합되는 제도가 절실하다. FA 등급제와 사치세 도입 등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제도개혁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KBO 정운찬 총재의 적극적인 노력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뉴스

유지됐다. 미국에서 메이저리그는 ‘국민 취미(national pastime)’로 불리지만 흥행과 매출 등 모든 면에서 NFL에 크게 뒤처져 있다.

NFL은 불공정한 게임인 메이저리그와는 다르게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할 수 없는 하드 셀러리캡, 모든 구단이 이익을 똑같이 나눠 갖는 수익 공유제로 변형을 누리고 있다. 메이저리그와 가장 큰 차이점은 완벽한 리그 평준화가 이루어지며 32개 팀 모두가 부자구단이라는 점이다.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인 KBO리그는 리그 평준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프리에이전트(FA) 제도를 잘 손질하고, 10팀 단일리그 특성에 접목한다면 리그 평준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KBO도 이 점에 공감하고 있다. 정운찬 KBO총재는 “현장 등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리그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FA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시즌 도중 발표했다한 국프로야구선수협회의 반대로 무산된 ‘FA총액 80억원 상한제’ 같은 정교하지 못한 방법은 갈등만 키울 수 있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는 솔로몬의 해법이 될 만한 아이디어가 가득하다.

●FA 등급제+사치세 도입=리그 평준화
FA 등급제는 가장 시급한 숙제다. 현

제도는 보상선수가 항상 발목을 잡는다. 등급제는 과거 메이저리그 방식이었던 외부 평가보다는 계약 총액으로 구분 짓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금과 연봉을 더해 1년 총액이 20억원 이상이면 S급으로 분류 보호선수 20인 외 보상선수 1명, 15~20억원은 A급으로 신인지명 2차 1라운드 지명권, 10~15억원 B급은 2라운드 지명권, 5~10억원 이하 C급은 보호선수 40인의 보상선수 1명, 5억원 이하는 총액의 100% 보상금 등으로 각각 차등화 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35세 이상 베테랑 FA는 보상선수나 보상금 없이 자유로운 이적을 보장하면 전력평준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팀이 보유한 FA선수의 연평균 지급액을 기준으로 사치세를 도입해 이를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을 유소년 야구 지원 및 타 구단에 똑같이 배분하면 특정 구단에 FA선수가 집중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연평균 지급액 상한선을 100억원으로 설정하면 4년 총액 100억원 규모 특급 FA는 팀 당 3명 이상 보유하기 힘들어진다. 사치세를 선택하는 팀도 나오겠지만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리그 평준화에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KBO리그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더 큰 도약을 위해선 신중함과 과감함이 겸비된 제도개혁이 절실하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새해엔 키움 히어로즈”...새 출발 준비 척척!

구단 시무식...15일 공식 출범 예정
고형욱 단장 “더 높은 곳으로 도전”

2019년, 히어로즈에게 주어진 키워드는 새로운 시작이다. 2010시즌부터 2018시즌까지 9년간 메인스폰서로 함께했던 넥센타이어와 이별하고, 올해부터 새 메인스폰서인 키움증권과 동행한다. 계약기간은 5년,

연간 100억원(총액 500억원)의 규모에 인센티브는 별도다. 11월6일 이미 키움증권과 메인스폰서십 계약을 마무리했고, 이제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구단 명칭은 ‘키움 히어로즈’다.

키움 구단은 2일부턴 2019년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고척스카이돔 그라운드에는 골든디스크어워즈 시상식을 준비하는 인파로 북적였지만, 구단은 조용히 키움 시대

를 준비하고 있었다. 오는 15일경 예정된 공식 출범을 앞둔데다 1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온 터라 업무량이 적지 않다. 고형욱 키움 단장은 “여러 가지를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웃으며 “아직 정식 출범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구단 명칭을 키움 히어로즈로 쓰면 좋을 듯하다. 미리 준비해야 팬들에게도 익숙해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수들은 지하에 위치한 웨이트트레이닝실과 볼펜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김혜성, 안우진, 김규민, 송성문, 윤정현 등 젊

은 피를 비롯해 김상수, 오주원 등 베테랑 선수들도 조용히 2019시즌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혜성은 “유니폼의 로고가 바뀌는 것 외에 크게 체감하는 것은 없다”면서도 어떻게든 팀의 순위 상승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고 단장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 키움증권과 인연을 맺었다”며 “선수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졌다. 강팀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 도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척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추운겨울도 두렵지 않다! 패딩과 기모안감의 완벽한 조화 겨울용 에어히트 패딩 기모 팬츠 1 + 1 59,800원



흑한 날씨에도 완벽한 체온유지 후끈한 착용감을 주는 패딩팬츠

2018 겨울시즌용 강력한 방한 아웃도어 팬츠 패셔너블한 디자인과 기능성의 완벽조화를 이룬 스타일리쉬한 제품이며 방한성을 고려한 기모안감원단과 패딩 소재를 신재부위별 배치하여 따뜻하고 편안하며 멋진 감까지 느낄 수 있는 고급형제품이다. 반수, 방한, 보온효과가 뛰어난 고밀도 원단을 적용한 아웃도어를 위한 고급 패딩바지이다.

사이즈 30, 32, 34, 36, 38
바지 1 + 1 ₩198,000 → ₩59,800
(택배비 2,500원 구매자 부담)

쇼핑몰 : www.style49.com
입금계좌 : 농협 302-1316-9132-11
예금주 : 이선희씨스포츠
전국주문전화 : 1588-4930

겨울 기모 반목 폴라 티셔츠~ 이거 하나면 올 겨울 준비 끝! 후끈후끈 겨울용 반목티셔츠 3종 모두 39,800원



겨울철 일상생활은 물론 등산·낚시·골프·사이클 등 레저활동에 안성맞춤

보온성·방풍성·실용성·패션성을 겸비한 반목 폴라 기모 티셔츠는 겨울철 추위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안성맞춤이다. 보온성이 탁월한 기모 안감 기술을 입힌 겨울용 반목 폴라 티셔츠는 겨울철 일상생활이나 등산·낚시·골프·사이클·스포츠 레저 활동시 적합한 제품으로 입는 순간부터 난로를 품고 다니는 듯 한 놀라운 차이를 온몸으로 느낄 것이다. 일상복 및 외출복으로 손색이 없으며 겨울철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 준다. 기모 반목 폴라 티셔츠는 단독 출시 기법으로 3종 세트를 특별 가격 행사를 한다.

사이즈 95, 100, 105, 110 겨울용반목티셔츠 3종 세트 ₩208,000 → ₩39,800 (택배비 2,500원 구매자 부담)
입금계좌 : 농협 302-1316-9132-11 예금주 : 이선희씨스포츠 전국주문전화 : 1588-4930